

# 고려인 교육, 만성적 인력난 해소 '마중물'

### 전기공사協, '가공배전 실무교육 수료식'... 교육생 9명 전원 국내업체 취업 성공

전기공사협회가 주관한 고려인 전기공사 교육의 교육생 전원이 국내 전기공사업체 취업에 성공했다. 고려인 전기공사 기술자 배출 확대를 통한 전기공사업계의 만성적인 기능인력 해소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는 서울 등촌동 소재 중앙회에서 '고려인 대상 가공배전 실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협회와 한전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이번 교육은 총 9명의 고려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협회와 한전이 각각 4000만원씩 총 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했으며, 교육생 9명 전원이 영광전력(대표 전연수), 세삼(대표 나영석), 일화중전기(대표 류종완), 진일전기(대표 김종선), 삼상이엔지(대표 김은수), 대신(대표 김병철) 등 국내 전기공사업체에 취직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에 교육을 수료한 고려인 9명은 3개월간의 전기공사 교육과정을 이수했고, 전원 가공배전전공 자격을 취득했다. 아울러 한국어 교육과 현장 체험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전기공사 기술자로서는 최적의 인재로 성장했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러시아어를 주로 사용하는 고려인들에게 통역사들조차도 어려워하는 전기 분야 기술을 담은 한국어를 교육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평상시 잘 쓰이지 않는 단어



다보니 통역사들조차 교육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협회는 가공배전 분야의 자재이름과 작업자 간 소통하는 단어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난관을 극복했다고 전했다. 일상 소통에서는 여전히 공부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쓰이는 말들은 대부분 구사 가능하다는 것.

협회는 이번 성과가 동포인 고려인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는 등 사회공공체 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업계의 기술인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성공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교육을 수료한 고려인 전기공사 기술자가 성장하는 과정이 일종의 마중물이 돼 더 많은 고려인 시

공기술자를 배출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셈이다.

이날 수료식에서 류재선 회장은 수료생 전원에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상벨트와 공구를 증정했다. 또 인력개발위원회에서 테스트 장비를 증정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류재선 회장은 수료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한발한발 내딛는 경험을 통해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전기공사 기술자로서의 자긍심을 품은 최고의 전문가로 거듭나 주길 기대한다"며 "더 많은 고려인 동포가 전기공사 기술자로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당당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대원 기자 ydw@

# 발전소 회처리설비 구매입찰 담합 적발

### 공정위, 케이씨코트렐·비디아이 등 2개사에 과징금·검찰고발

발전소 회처리설비 구매입찰에서 담합이 적발된 업체들에 검찰고발과 과징금 부과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3개 발전공기업이 발주한 3건의 회처리설비 구매입찰에서 케이씨코트렐, 비디아이 2개사가 예정가격을 인상시킬 목적으로 입찰을 고의로 유찰시킨 담합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총 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개 업체 사업자와 케이씨코트렐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발전공기업(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은 2013년 초 회처리설비 구매입찰을 발주했다.

회처리설비는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석탄이 연소된 뒤 부산물인 석탄회(Coal Ash)를 재활용(시멘트원료, 아스팔트 필러, 비료 등)하기 위해 도입하는 설비다.

발전사의 회처리설비 입찰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기술·실적에 따른 진입장벽이 존재해 소수의 업체만이 참여하고 있다.

케이씨코트렐 등 2개사는 구매입찰에서 낙

찰가격을 인상시키려는 목적으로 낙찰예정가를 초과하는 수준의 금액을 반복적으로 투찰해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한국중부발전(2013년 3~9월), 한국남부발전(2013년 3~8월), 한국서부발전(2013년 9~12월)이 실시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대비 최고 155%에 이르는 높은 금액을 투찰함으로써 3건의 입찰을 모두 유찰시켰다.

발전공기업들은 발전소 건설공정의 차질을 막으려는 등 시급성을 고려해, 해당 입찰의 예정가격을 인상하고 다시 입찰을 실시했다. 이들 업체는 예정가격이 인상되자마자 예정가격 대비 99.8% 수준으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2억 4800만원을 부과하고, 2개사 사업자와케이씨코트렐의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회처리설비 제조·판매사들이 국내 회처리설비 구매입찰 시장에서 행해 온 유찰담합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관련 입찰 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정일 기자 yunji@

## 코트라, '新남방정책' 플랜 가동

### '한-인도 비즈니스 파트너십' 개최 전기·전자, 에너지 등서 원원 기대

코트라(KOTRA)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1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순방에 맞춰 '한-인도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28곳과 인도·서남아 지역 기업 110여개사가 270여건의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양국 기업의 비즈니스 상담은 우리 기업의 현

지 진출을 통해 신남방정책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이는 뉴스 3면**

코트라는 인도의 산업화·경제성장에 따라 현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부품,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행사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혁신기술 기업 26곳과 120여개 인도 기업이 참여한 'K-글로벌(Global) 인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투글로벌(B2G)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코트라는 두 나라가 상생할 수 있는 분야에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우리 기업의 대(對)인도 진출을 더욱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윤정일 기자

## “교육과정도 무사히 마치고 취업까지, 기쁨 두배”



김예우게니 교육생

욱 기쁘다며 수료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고향에서 일거리가 부족해 한국에 온 그는 고려인들에 대한 비자특혜를 강조했다.

“한국에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3년 기한의 비자를 발급해줍니다. 이 때문에 많은 고려인들이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향에서 택시운전을 했던 그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3년 전 한국에 왔다. 이후 그가 맨 처음 일을 시작한 곳은 냉장고 공장이었다. 우즈베키스탄과 비교해 더 많은 월급을 받았지만 단순노동이었고 자기계발이 없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든 그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측의 교육제의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합류했다고 말했다.

“전기공사는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하지 못합니다. 비록 3개월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직업을 찾게 돼서 뿌듯하다고 했다. 교육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은 없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무더운 햇볕 아래 전주 위에서 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특히 체력적으로 달려 힘들었지만 차차 적응해 이젠 그리 힘들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향후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전기시공업체에 취업하게 됐습니다. 막상 일을 하려고 하니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에 실력이 부족해 해당 업계 사람들과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가 고민입니다. 지속적인 한국어 공부를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해준 전기공사협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준범 기자 jnb@

한국전기공사협회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9명을 대상으로 한 '배전전공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10일 막을 내렸다. 지난 4월 16일부터 3개월간 진행해온 교육과정을 통해 9명의 고려인 모두 수료를 한 동시에 한국에 있는 전기시공업체로 취업하게 됐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김예우게니씨는 교육과정도 무사히 마치고 취업까지 하게 돼서 더

## 1면서 계속 北 철도 현대화 갈길 멀다...종합적 접근 필요

아울러 철도의 안전성 또한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 철도기관 관계자는 “북한에서는 인프라 노후화 등 위험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사가 운행 중에 육안으로 상황을 파악해야 할 정도로 신호·통신체계가 불비한 실정”이라며 “당장에는 철도망 연결에만 논의가 집중돼 있지만, 향후 연결 시에는 안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철도의 증속 문제 해결도 남북철도 연계를 위한 선결과제로 꼽힌다. 북한철도의 속도는 여객 50km/h, 화물 40km/h로 상당히 느

린 수준이다. 남한의 경우 여객 300km/h, 화물 120km/h의 속도로 운행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철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북한철도가 남한 수준의 속도를 내기 위해선 사실상 노선 신설 수준의 사업이 필요할 것이라곤 중론이다.

북한의 경의선 복원 작업에 참여했던 박홍수 코레일 기관사는 “북한철도는 나무 침목이 다 썩는 등 인프라 상태가 좋지 않아 30km/h 내외로 운행하는 게 고작”이라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현대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야만 동북아 철도망 구축 등의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 KECA EXPO 2018 전기공사엑스포**

제 28회 전국 전기공사기능경기대회  
외선지중선부문 최우수상 수상!

고품질 성실시공을 통해 고객에 소중히 하는

# (주)나영전력




전기공사에 임하는 한 순간 한 순간을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킨다는 시명으로  
현재의 위치와 영광에 결코 자만하지 않고  
더욱 최선을 다해 성실 시공에 임하겠습니다.

- (주)나영전력 임·직원 일동 -

**(주)나영전력**  
대표이사 고종윤

경북 영덕군 영덕읍 중앙길 38-4, 2층  
T. 054-734-6813 / F. 0505-300-6814